

서귀본향당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허남춘*

〈차례〉

1. 서
2. 서귀본향당본풀이의 자료 개관
3. 서귀본향당본풀이의 중요 신화소
 - 3-1 천지개벽
 - 3-2 뽕개질과 사냥의 신
 - 3-3 射矢卜地
 - 3-4 신들의 위엄
4. 결

〈국문요약〉

제주에는 아름다운 경관만큼 아름다운 신화가 전해오고 있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온 까닭이다. 농사를 짓던 것보다 오랜 수렵채취의 인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로 전해 온다. 사냥을 위해 신을 섬기던 시기의 구비서사시가 남아 전해지고 있다. 신앙서사시라 할 당본풀이 중에서 <서귀본향당본풀이>에는 바람의 신이자 사냥의 신이 등장하고 사냥꾼 김봉태가 신앙민으로 뗏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처럼 사냥과 인간의 소망이 담겨 있어, 최초 신화의 탄생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서귀본향당본풀이>에는 ‘천지개벽’ 화소가 등장한다. 태초에 어둠이었다가 하늘의 닭이 울어 세상이 조금씩 밝아졌다는 이야기처럼 어둠을 밝히는 화소가 담겨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것보다 더 원초적인 모습의 천지개벽이라 생각된다. 고산국이나 지산국이란 인격신이 어둠을 밝혔다고 하니 자연히 어

둠에서 밝아졌다고 하는 비인격신적 전개보다 앞선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뽕개질(무릇매)과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하였다는 화소는 탐라국 건국신화의 3신인이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하였다는 것과 같다. 활을 쏘아 사냥하던 3신인이 3여신을 만나 정주하게 된 것처럼 고산국과 지산국도 정주하는 쪽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모습을 받게 된 신의 형상이 매우 정교하고 상세하면서도 우아함과 화려함을 지녀, 신앙민들이 신을 우러르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 속에서 신화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고, 종교와 문학의 상호성을 다시 실감하게 한다.

주제어: 사냥법, 사냥의 신, 천지개벽, 창세, 射矢卜地, 讀神, 제주도, 서귀포, 巫俗敘事詩

1. 서

<서귀본향당본풀이>는 그 이름이 미미하게 전하여져 오고 있을 뿐, 그 실체가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의 당신 본풀이를 본다면 송당계와 한라산계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예레계와 금악계가 알려져 있다. 반면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이라 서귀계)의 본풀이는 그 원형의 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목한 것은 1980년대 김화경의 논문이고, 그 후 강권용과 강정식의 당신앙 연구가 있었을 때 언급된 바 있다. 집중적인 관심은 최근 김현선과 권태효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이런 최근 관심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서귀계의 다양한 특성을 채 다루지 않고 있어 이를 총체적으로 조명할 필요를 느꼈다. 우선 일반신본풀이 <천지왕본풀이>나 큰곳의 초감제에서 구연되는 ‘천지개벽’ 신화소가 당신 본풀이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전체 제차에서 보면 ‘천지개벽’의 신화소는 신기할 것이 없다. 곳의 서두에는 늘 ‘베포도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 본풀이 그 어디에도 이런 신화소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조동일 교수가 주목했듯이 사냥의 신이 등장하는 신화는 드문데 이 서귀계가 오래된 신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오래된 사냥법인 ‘뽕개질’이 등장하는 점도 신선하기 그지없다.

다음으로는 뽕개질을 하거나 활을 쏘아 각자 살 곳을 정하는 신화소는 탐라국 건국신화에 나오는 것인데, 서귀계가 이런 귀중한 신화소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 또한 신앙민이 자신들이 모시게 된 신의 형상을 멋지게 그려내면서 찬양하고 찬미하는 대목에서, 표현의 아름다움 또한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무가의 표본이 됨직하다. 그런 점 때문에 서귀계 신화소를 깊이 들여다보고 해석을 가해 보고자 했다. 물론 이외에 남녀신의 결합, 자매신의 갈등, 구상나무 화소 등도 다루어야 하지만 그것들은 어느 정도 다루어진 바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구상나무는 경우에 따라 ‘상나무’ 즉 향나무이고 그것이 신을 초빙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드는데 다음 논문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서귀포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보면 한라산 반대편에 있는 오지다. 서귀포는 고려시대부터 내내 후풍처 또는 방호소로서 역할을 해 온 곳이다. 고려시대까지 홍로현에 소속되었다가 조선 초 정의현에 소속되었고, 방호소에 성을 설치한 후로 서귀진 역할을 하였다. 서귀진은 처음에 홍로내(洪爐川) 위에 있었는데 나중에 정방폭포 근처로 옮겼다. 여기서 오래 전부터 사용한 ‘홍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쓰는 지명인 동홍과 서홍이 모두 홍로에서 온 것이다. <서귀본향당본풀이>는 서귀리의 본향당 본풀이이지만, 동홍동과 서홍동이 모두 이 계열의 본풀이다.

『태종실록』(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 『탐라지』(17세기) 『증보탐라지』(18세기) 등에 ‘洪爐’로 적혀 있었다. 동홍동은 일찍부터 ‘홍로’ 또는 ‘홍리’로 부르다가 한자 차용 표기로 ‘洪爐’, ‘烘爐’라 하였다. 그러다가 동쪽지역을 ‘동홍리’ ‘동홍로’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로’를 생략하고 ‘烘’으로 굳어져 ‘東烘’이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서쪽지역을 ‘서홍’이라 하였다.¹⁾ 동홍과 서홍은 신들의 갈등과 별거로 인해 나뉘어졌다고 하지만 애초에는 행정상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홍로현에서는 동홍과 서

홍과 서귀가 중심지 역할을 했고 서로 인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홍로라는 지명은 그 후 지역민들에게 오래 남아 있었다. 동홍과 서홍이 당 신앙에서는 별개이지만 본풀이 차원에서는 같은 뿌리임을 실감한다.

<서귀본향당본풀이>계열의 신화는 다음과 같다.

1. 서귀본향당본풀리, 박봉춘 구연, 1902년생, 1930년대 구연, 1937년 수록.
2. 서귀본향①, 박생옥 구연, 1905년생, 56세 구연(1960년), 1991년 수록.
3. 서귀본향②, 김홍 구연, 1894년생, 70세 구연(1963년), 1991년 수록.
4. 서홍리본향, 김영식 구연, 1901년생, 58세 구연(1958년), 1991년 수록.
5. 홍로본향①, 박생옥 구연, 1905년생, 56세 구연(1960년), 1991년 수록.
6. 홍로본향②, 김화춘 구연, 1911년생, 56세 구연(1966년), 1991년 수록.
7. 西歸·東烘본향당, 박기석 구연, 1909년생, ?, 1980년 수록.

1은 『조선무속의 연구(상)』이고, 2-6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이고, 7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이 출전이다. 김기형 교수는 박생옥의 호적을 들어 1908년생이라 했고, 박기석을 두고 1910년생이라 했다.²⁾ 이를 따르면 본풀이 서귀본향①, 홍로본향① 구술 시기가 1963년일 수도 있다. 박봉춘 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본풀이가 1960년대 전후에 채록된 것으로 보인다.

2. 서귀본향당본풀이의 자료 개관

한라산계의 지류에 해당하는 서귀본향당본풀이의 내용도 흥미로운 점

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I』-서귀포시편,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770~799면.
2) 김기형, 「서귀포 심방 박봉춘의 가계와 무업 활동」, 『한국무속학』 31집, 한국무속학회, 2015, 41면.

이 많다. 서귀본향당본풀이와 비슷한 내용의 본풀이가 ‘벗툼웃도’와 ‘지산국’이 좌정한 서귀본향당뿐만 아니라 고산국이 좌정한 서흥본향당에서도 전승된다. 즉 서귀동, 동흥동, 서흥동의 세 지역이 관련 있다.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실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여기 제시하는 자료 구연자 박봉춘(1902년 생)은 서귀리에 거주하였으나 예촌 심방이었고 박생옥(1908년 생)은 부친 박순홍의 대를 이어 서귀리 본향당 매인심방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박봉춘과 박생옥은 먼 친척 관계였다. 현용준 선생이 채록한 본풀이 구송자인 박기석(1910년 생)은 박봉춘의 5촌 조카다. 강정 심방 박남하(1922년 생)도 5촌 조카라고 한다.³⁾ 자료를 살펴보면 박봉춘 심방도 <서귀본향본풀이>와 <토산당본풀이>를 구송하고 있는데, 박생옥도 <서귀본향> <흥로본향> <웃당본> <알당본> 등 서귀와 토산 두 군데를 구송하는 것이어서 우연 치곤 흥미롭다.

서귀본향본풀리(박봉춘본)

- 1) 탐라 출신 바람운이 미색을 갖춘 고산국과 혼인하였다.
- 2) 바람운이 언니보다 더 미인인 지산국과 제주도로 도피한다.
- 3) 언니 고산국이 쫓아오자 지산국이 안개도술을 피워 찾을 수 없게 만드나.
- 4) 고산국의 하소연을 듣고 바람운이 나뭇가지를 꺾어 절벽에 찜으니 닭이 되어 울게 되니 밤이 새고 천지를 분간하게 되었다.
- 5) 고산국은 동생과 바람운을 비난하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며 떠난다.
- 6) 둘은 백록담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나침판을 놓아 살오름에 좌정하게 되었다.

3) 김기형, 위의 논문, 40~44면. 현재 서귀본향당을 지키고 있는 박정석(1944년 생)은 늦게 심방이 되었는데, 그의 신아버지는 박남하였다. 그렇지만 박남하로부터 말미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서흥리 김영식 심방 등 제주 전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말미를 정립했다고 한다.

- 7) 김봉태가 사냥복장에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오다가 둘을 만났다.
- 8) 둘은 인간 차지 왔다고 하고 태운 인간이니 인도하라고 김봉태에 명하였다.
- 9) 상하서귀 김봉태 집에 갔다가 여러 곳을 거쳐 고산국과 만나고 화해를 청한다.
- 10) 뽕개를 날려 고산국은 서흥리를 차지하고, 둘은 상하서귀로 좌정한 다.⁴⁾

서귀본향(박생옥본)

- 1) 바람운과 고산국 부인이 혼인하였다.
- 2) 고산국이 박색이고 처제가 미인이어서 처제와 함께 제주도로 피난을 왔다.
- 3) 한라산에 들어오니 천지가 캄캄하여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4) 고산국 동생인 지산국은 구상나무로 닭을 만들어 세상이 밝아지게 하였다.
- 5) 바람운이 활을 쏘고 지산국은 뽕개질을 하여 쌀오름에 올랐다.
- 6) 사냥꾼인 김봉태가 자기 집으로 두 신을 모셔 갔다.
- 7) 집이 부정하다고 하여 먹구들로, 다시 가시머리 외돌로 옮겨 좌정하였다.
- 8) 이때 고산국이 활을 준비하여 둘의 뒤를 쫓아 왔다.
- 9) 고산국이 둘을 차마 죽일 수 없어 땅을 갈라 살자고 제안하였다.
- 10) 고산국은 서흥리에, 바람운과 지산국은 서귀리에 분거하게 되었다.⁵⁾

서흥리본향(김영식본)

- 1) 바람웃도가 중국에 갔다가 예쁜 처녀를 보고 주인에게 딸을 달라고 졸랐다.

4) 아카마츠·아키바, 심우성 역, 『조선 무속의 연구(상)』, 동문선, 1991, 355~371면.

5)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497~499면.

- 2) 바람웃도는 고산국과 혼인하였는데 박색이었고, 자신이 보았던 여인이 아니었다.
- 3)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엿보아 제주도로 도망 오게 되었다.
- 4) 고산국이 활을 들고 축지법으로 둘의 뒤를 쫓아왔다.
- 5) 바람웃도는 풍운조화를 부려 천지가 깜깜하게 만들었다.
- 6) 고산국은 구상나무로 닭을 만들어 세상이 밝아지게 하였다.
- 7) 둘의 정체가 드러나고 고산국에 살려달라고 빌어 죽일 수 없었다.
- 8) 고산국이 쌀오름에 오르고 바람웃도와 동생도 좌우에 앉게 했다.
- 9) 사냥꾼인 김봉태에게 좌정처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 10) 고산국은 가시머리 외돌에서 좌우를 살펴보고 땅을 갈라 살자고 명령하였다.
- 11) 고산국은 서흥리를, 바람웃도는 하서귀를 차지했다.
- 12) 동생은 지씨로 성을 바꾸게 한 후 동흥리를 차지하게 해 주었다.⁶⁾

이 자료 이외에 김홍본 ‘서귀본향’이 있으나 내용이 단편적이고, 김기생본 ‘서귀본향’도 있으나 고산국과 지산국이 박색이고 예쁜 사정만 전한다. 박생옥본 ‘흥로본향^①’은 앞의 ‘서귀본향’과 내용이 거의 같다. 김화춘본 ‘흥로본향^②’는 앞의 ‘서흥리본향’과 내용이 거의 같다. 김화춘은 서흥리 심방이어서 동흥리의 당본풀이를 풀었지만 실은 서흥리 당본풀이를 풀 셈이다. 장주근 선생 채록의 ‘서귀리 본향본풀이’도 박생옥이 풀 것이어서 앞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고산국과 일문관 바람웃도의 출자처로 나오는 ‘흥토나라 흥토천리 비오나라 비오천리’는 큰 의미가 없다. 중문 강정리 강정본향의 신도 ‘흥토나라 흥토천리 비우나라 비우천리⁷⁾’가 출자처여서 여기저기 관용구로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하다.

서흥과 동흥(서귀) 본풀이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도 하나이다. 서귀본향에서는 지산국의 능력이 강조되는 반면 고산국의 역할은 미미하게 그려

6) 진성기, 위의 책, 501~506면.

7) 진성기, 위의 책, 518면.

진다. 서흥리본향에서는 고산국의 능력이 크게 강조되고, 바람웃도와 지산국은 고산국의 명령에 절절 매는 형국이다. 물론 바람웃도가 안개를 피우고 풍운조화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고산국의 대응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신들의 능력차를 제외하면 출자처와 좌정처가 동일하고 사건 전개방식도 같다.

서귀본향당본풀이는 당신본풀이 가운데 비교적 풍부한 서사를 간직하고 있는 편이다. 남녀의 애정관계가 주요 내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애정관계가 서로 다른 마을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또한 서귀본향당본풀이에는 古形의 화소도 일부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바람웃도와 동생이 도망가고 그 뒤를 고산국이 추격하여 서로 대결하는 과정에서 천지가 어둡고 암흑으로 둘러싸이자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꺾어 절벽에 꽂으니 닭의 형상이 생기고 이어 울음 소리가 나면서 세상이 밝아졌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천지창조의 화소와 흡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돌을 묶어 뽕개질을 하여 떨어진 곳에 좌정처를 정하는 모습도 원시적 수렵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화소이다.

한편 당의 본풀이가 인근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점도 소중하다. 해당 마을의 역사적 경험들이 본풀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서귀본향당본풀이에서 고산국은 바람웃도와 지산국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존재이다. 본풀이에서 신들이 땅과 물을 서로 갈랐기 때문에 이들 신이 각각 좌정한 서흥동과 우알서귀(동흥동과 서귀동) 마을은 서로 교류와 통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⁸⁾ 당본풀이의 형성이 각 마을이 자리한 자연적 배경, 풍토, 생업과 생활문화 양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드

8)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양 마을 간의 대립·갈등의 원인이나 제반관계를 금기시하게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노소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노년층 주민들은 堂神들끼리의 갈등·대립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연소층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거나, 별로 대립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3, 21~22면)

러난다.

3. 서귀본향당본풀이의 중요 신화소

3-1. 천지개벽

할로영산에 들어와 보니	한라영산에 들어와 보니
천지가 쿵쿵하니	천지가 캄캄하니
하늘과 땅이 와와하고	하늘과 땅이 컴컴하고
동서남북을 곱가를 수가 웃습네다.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상낭을 꺾어	구상나무를 꺾어
치하설백에 꼬조완 시니	층하절벽에 꽃아놓고 있으니
천왕득은 목을 꺾으고	천왕답이 목을 꺾고
지왕득은 날개를 벌리고	지왕답이 날개를 벌리고
계명득 소리가 나고	계명답 소리가 나고
세상이 밝아집네다.	세상이 밝아집니다. ⁹⁾

바람운이 한라영산에 들어가 보니, 천지가 캄캄해졌다고 한 데서는 천지개벽이 시작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어두워서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다가, ‘천왕답’과 ‘지왕답’이 울어서 세상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새 역사의 시작이다. “고산국 아시, 체아지망은 피란을 온지우젠 고가 성을 지가로 변경을 하고” 한라산에 들어와 보니 천지가 캄캄하여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었고, 구상나무를 꺾어 절벽에 꽃아두니 천왕답과 지왕답이 목을 꺾고 날개를 두드리며 꼬끼오 소리를 내니 세상이 밝아졌다고 한다. 암흑천지를 개명시킨 주체는 고산국의 아우인 지산국이다. 이처럼

9) 진성기, 위의 책, 497면.

‘서귀본향’에서는 지산국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서흥리본향’에서는 천지개벽의 주체가 고산국이다.

일문관 브름웃드는
 제주는 뉘 제주를
 ㄴ졌는가?
 풍원조애를 불리고
 동서남북이 콤콤하고
 안개가 찌고
 비가 오고
 흥난
 뒤에 심으레 쫓아온 부인은
 동서남북을 몰르난
 무르디더 앓안 보난
 청암설백 에염일
 오라졌구나
 배심심흥연
 보젠치 아녀연
 청암설백 중칭데레
 브레여보난
 죽은 구상냥이 이셨구나
 돈돈이 보난
 서눔이 된남이로구나
 이젠 일어산에
 그 남을 끌어내연
 석은 걸 털어불런 보난
 배만 남은 게
 어떻게 득 모양이 되었구나

일문관 바람웃도는
 재주는 무슨 재주를
 가졌는가,
 풍운조화를 부리고
 동서남북이 캄캄하고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하니가
 나중에 잡으려고 쫓아온 부인은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그 자리에 버티어 앉아서 보니까
 층암절벽 곁에를
 와버렸구나,
 심심하여서
 일부러 보려고 아니하고서
 층암절벽 중턱으로
 쳐다보니까
 죽은 구상나무가 있었구나,
 자세히 보니까
 형용이 단단한 나무로구나,
 이제는 일어서서
 그 나무를 끌어내어서
 썩은 것을 털어버리고 보니까
 배만 남은 것이
 어떻게 닭 모양이 되었구나.

이젠 채암이 시여난
 원중치기에 꽃다 놓난
 즈축 야삼은 되여가난
 목을 들러 울고
 놀깁 따리고 소릴 쳤다
 그 소릴 치는 바람엔
 도실안개가 걷어전
 정신을 출런 보난
 저 끝댕이에 둘이가
 앓았구나

이젠 처음에 있었던
 원 자리에 가져다 놓으니까
 子丑 야삼경이 되어 가니까
 목을 들어 울고
 날개를 치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치는 바람에
 짙은 안개가 걷혀져서
 정신을 차려 보니
 저 끝에 둘이
 앓아 있구나.

<서흥리본향당본풀이>에서 바람웃도와 지산국이 몰래 제주도로 도망가자 고산국이 둘의 뒤를 쫓아가서 결국 둘을 찾아낸 장면이다. 고산국이 둘(바람웃도와 지산국)에게 화살을 쏘아 응징하려고 하자 둘은 살려달라고 빌게 되고, 고산국은 남편인데 죽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용서한다. 그 대신 함께 살 수 없으니 땅과 물을 가르자고 하고 분거하게 된다. 천지를 혼돈의 상태로 바꾸는 바람웃도의 풍운조화 능력도 대단하지만 그 혼돈의 어둠을 깨트리고 천지를 개명시키는 고산국의 능력은 압권이다. 각 이 본별로, 풍운조화를 부린 주체(가)와 컴컴해진 세상을 밝게 만든 주체(나)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봉춘본>

- (가) 도술에 능한 동생이 안개를 피워 칠혹 같은 밤을 만드니
 (나) 고산국은 안개를 거두어 달라고 하자, 바람운이 나무로 닭을 만들어 울게 되니 어둠이 가심

<김영식본>

- (가) 일문관 바람웃도는 풍운조화를 일으키니
 (나) 고산국이 구상나무로 닭을 만들어 울게 하니 안개가 걷힘

<박생옥본>

(가) 한라산에 와 보니 천지가 본디 캄캄하더니

(나) 고산국 아시 체아지망(지산국)이 구상나무로 닭을 만들어 올게 하니
세상이 밝아짐

본디 세상이 캄캄하던 상황이라고 한 것도 있고, 지산국 혹은 일문관 바람웃도가 풍운조화를 일으켜 캄캄해졌다고도 한다. 그 혼돈의 세상을 바람운이 해결했다고도 하고, 고산국이 해결했다고도 하고, 지산국인 경우도 있어 셋이 모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그런데 이 세상이 캄캄하다는 것은 우주의 혼돈 상황을 의미하고, 하늘 닭이 울어 혼돈이 사라지고 세상이 밝아졌다는 것은 우주가 밝아졌다는 創世를 의미한다.

천왕득은 목을 꺾으고

지왕득은 날개 벌리고

계명득 소리가 나고

시상이 밝아집니다

(진성기, 서귀본향, 박생옥본)

천왕닭은 목을 꺾고

지왕닭은 날개를 벌리고

鷄鳴(開明) 닭 소리가 나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천왕득은 목을 들러

지왕득은 날개 치와

인왕득 출릴 칠 때

갑을동방 너엄들러

먼동 금동이 터올때

동성계문이 도업으로 제이르자

(현용준, 초감제, 안사인본)

천왕닭은 목을 들어

지왕닭은 날개를 치고

인왕닭은 꼬리를 칠 때

甲乙東方 잇몸 들어

먼동이 트고 밝아올 때

東星開門 도업으로 제이르자.

천지혼합이 되어 있을 때, 하늘과 땅이 띄엄쳐림 벌어지고 하늘에서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흑이슬, 중앙에서 황이슬이 내려 합수되어 만물이

생긴다. 이어서 천지인의 닻이 울어 세상이 밝아졌다는 ‘베포도업침’의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과 <서귀본향>의 세상이 밝아지는 장면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므로 ‘서귀본향’과 ‘서흥리본향’ 등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의 신화 속에는 천지개벽의 사유가 남아 있다. 애초에 당본풀이에 있던 천지개벽의 이야기는 후에 일반신본풀이로 확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고산국이나 지산국이란 인격신이 어둠을 밝혔다고 하니 자연히 어둠에서 밝아졌다고 하는 비인격신적 전개보다 앞선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¹⁰⁾

서귀포를 에워싼 한라산과 자연의 ‘베포’가 제주도 전역의 ‘베포’로 바뀌고, 서귀포의 도업이 제주도 전역의 도업으로 확장된 것이 제주도 곳의 서두를 장식하는 초감제의 ‘베포도업’이 아닐까.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의 신화는 한국 신화의 신비를 풀 열쇠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도 할라산으로

피란을 오라

물장오리 오백장군을

구경흐단 보난

밤이 어두워 왁왁흐난

이젠 심심흐난

구상낭 가질 꺾언

설백에 좁전 나두난

천하득이 되언

제주도 한라산으로

피난을 와서

물장오리 오백장군을

구경하다 보니

밤이 어두워 킁킁하니까

이제는 심심하니

구상나무 가지를 꺾어서

절벽에 끼워서 놓아두니까

天下 닻이 되어

10) 그러나 이 문제를 신증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신앙서사시가 창세서사시보다 앞설 것이라는 추정은 신령서사시의 출현과정에서 신앙서사시가 앞선다는 일반론에 기인하는데 아직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조동일 교수도 <서귀본향당본풀이> 같은 신앙서사시와 <천지왕본풀이> 같은 창세서사시는 사건 설정이나 전개방식이 아주 달라, 창작한 집단이 서로 달랐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선후문제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56면)

동성개문 율료

능료스난

(진성기, 서귀본향², 김홍본)

동성개문(東城開門) 열러

내려서니까

서귀본향한집이 제주도 한라산으로 피난을 오다가 물장오리와 한라산을 구경하다 보니 밤이 되었고, 심심해서 구상나무로 만든 닭이 울자 아침이 밝아왔다는 내용이다. 천하가 혼돈의 어둠으로 있다가 천왕닭이 울어 천지가 개벽한 ‘태초의 아침’에 대한 신화가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성성이 약화되고 ‘일상적인 하루의 아침’이 오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신화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지역의 당본풀이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신성성이 약화되는 변화를 겪었을 텐데 ‘천지개벽’의 화소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적이라 하겠다.

3-2. 뽕개질과 사냥의 신

바람운님이

화살 등겔 해서

활을 쏘와

술오름 상봉오지로 지고

부인은 뽕개를 치니

술오름 동산에 간

지였습니다

(진성기, 서귀본향, 박생옥본)

바람운님이

화살 두 개로

활을 쏘아

살오름의 상봉에 떨어지고

부인은 뽕개를 치니

살오름 동산에 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운’은 바람웃도의 다른 이름이다. 바람웃도는 바람을 잘 활용하는 사냥의 신이다. 바람이 짐승 쪽에서 사람 쪽으로 불어와야 사냥을 할 수 있고, 사람 쪽에서 짐승 쪽으로 불면 짐승이 사람의 냄새를 맡고 도망가

므로 사냥을 할 수 없어, 바람과 사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본풀이의 주인공은 그 이름에서 바람의 신임을 알 수 있을 따름이고, 바람의 신으로 활약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없는 한라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개척한 신으로 소개되고 있다. 활을 쏘고 뽕개를 치는 것은 사냥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¹¹⁾ 한라산에 와서 바람운이 화살을 쏘고, 그 부인이 뽕개를 친 결과 화살과 돌이 쌀오름에 떨어졌다. 한라산에서 쌀오름까지는 바람운과 지산국의 사냥 반경이기도 하고 산 아래 쪽으로 좌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거기서 가죽옷 복장을 하고 사냥개를 데리고 온 김봉태라는 사냥꾼을 만나게 된다. 사냥꾼은 바람운과 지산국을 사냥의 신으로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과정이 전개된다.

짐봉태 할으방은
산달피 감퇴에
지달피 옷통에
목 좁은 약돌기에
청삽사리 흑삽사리
너눈이 목동전 거느리고

...

이젠 짐봉태 그 신위를
모시고 내려오란
좌정을 하니

(진성기, 서귀본향, 박생옥본)

김봉태 할아버지는
山獺皮 감투에
地獺皮 옷도리에
목 좁은 도시락통에
靑삽살개 黑삽살개
네 눈의 牧童犬을 거느리고

...

이젠 김봉태가 그 神位를
모시고 내려와서
坐定을 하니

짐봉태라는 인간이로다
뗏흔레 갔던고
사냥을 갔구나

김봉태라는 인간이로다
무엇하러 갔던가
사냥을 갔구나

11) 조동일,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54~55면.

사냥가던 짐봉태는
 고산국의 맹령을 받고
 제 오는냥만 완시민
 인간처를 츠자 드리겠습네다.
 고산국은 짐봉태 가는냥만
 조롬에를 종갓다

(진성기, 서흥리본향, 김영식본)

사냥 가던 김봉태는
 고산국의 명령을 받고
 제 오는 양만 오고 있으면
 인간 거처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고산국은 김봉태 가는 대로만
 뒤에를 쫓았다.

지달피와 산달피는 다른 본풀이에서도 등장한다. “지달피 알통에 산달피 옷통에 무우나무 잘리에 주석이 단개에 반동개 칼을 둘러차고 관사농을 나가서 굴미굴산 노주방산 올라사 노리 시슴 대강록 소강늑 맞쳐서 혈을 빼서 자시고(지다리 가죽바지에 산달피 저고리에 흑산호나무 칼자루에 주석으로 만든 동개에 반 토막의 칼을 둘러차고 밤 사냥 나가서 깊고 큰 산 올라가 노루와 시슴 대소각록 쏘아 피를 빼서 자시고)”¹²⁾에서 보듯이 산달피와 지달피 차림에, 동개(화살통)와 칼을 차고 사냥에 오르는 모습이 유사하다. 물론 ‘네눈이 반동개’를 데리고 한라산에 오르는 장면도 도처에 보인다.¹³⁾ 한라산 근처 중산간 지역의 당본풀이에는 아직도 사냥꾼의 모습을 형상화한 신화는 자주 보인다. 그런데 한라산신이건 바람신이건 신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경우는 별로 없다. “봉태 하르방 봉태 할망 지리산쟁이청(길이 바른 총을 가진 사냥꾼) 산신이 여들애”¹⁴⁾라고 하여 사냥꾼이 활 대신 총을 가진 것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는

1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18면. ‘평대리 본향본풀이’

13) “네눈이 반동개가 거느려 하로 하로산이 올라가”(장주근, 위의 책, 212면); “네눈이 반들개 청 삽살일 거느려 울미굴산 올라”(산신본, 진성기, 위의 책, 650면); “네눈이반동개 마사소총 거느려”(마다싯당, 진성기, 위의 책, 345면); “네눈이반동개 거느려 질이바른 마세총 귀약통납늘개 거느려”(고평본향, 진성기, 위의 책, 366면); “네눈이반동개에 오를 목 너릴 목을 짓누비명”(회천본향, 진성기, 위의 책, 339면).

14) 장주근, 위의 책, 238면. 박생옥 구술본. “봉태 할으방 봉태 할망 산신 요드레”(진성기, 위의 책, 499면) 역시 박생옥 구술본이다.

데 이 사냥꾼이 산신과 관련을 맺는다. 오직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냥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뿔개질’이 나타난다.

사냥꾼과 사냥의 신의 만남,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냥감을 늘리기 위해 신을 섬기던 시기의 관심사를 남기고 있다. 그런 서사가 아직까지 전해지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¹⁵⁾ 신과 단골의 만남도 있어서 단골에 의해서 신이 어떻게 숭앙되고 좌절하게 되는가 알 수 있는 당본풀이다. 신들이 만나서 사연을 이루고 인간을 만나서 좌절하는 점은 다른 당본풀이에서도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신화소이다.¹⁶⁾ 둘이 산에 올라가, 바람운은 활을 쏘고, 부인은 돌맹이를 끈에다 묶어서 돌리다가 던지는 ‘뿔개’를 쳤다는 것은 사냥하는 행위이고, 사냥법을 인간에게 알려줘 많은 사냥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의미와 연관된다.

‘서귀본향’은 박생옥이 56세 때 구송한 것이니 1960년(혹은 1963년)의 일이다. 장주근 선생이 채록한 <서귀포 본향본풀이>는 박생옥이 63세에 구송한 것이니 1967년(혹은 1970년)의 일인데, 조금씩 다르다. 화살을 두 개 쏜 것이 아니라 ‘동개’(화살을 담는 동개)로 되어 있고, 짐봉태도 김봉태로 되어 있고, 지달피를 지다리(두더쥐) 가족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⁷⁾ 진성기는 뿔개를 ‘돌맹이를 끈에 묶어 돌리다가 띄워 던지는 것을 말함’이라 했고, 장주근은 뿔개를 ‘石戰用 投石에 쓰는 노끈으로 꼬아 만든 도구’라 했다. 현용준은 뿔개질을 ‘한발쯤 된 노끈을 접어 겹친 새에 돌을 접히고 노끈 끝을 쥐어 돌리다 돌을 날려 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이 뿔개질이 바로 무릿매(sling)이다. 끈에 돌을 넣어 돌림으로써 얻어지는 원심력으로 멀리 날려 보내 타격을 입히는 원거리 무기이다. 이 원격사냥은 인간 문명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5) 조동일, 위의 책, 56면.

16) 김현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268면.

17) 장주근, 위의 책, 237면.

고산국은 활을 쏘와
 지경을 갈르며는
 남편 갈 디가 엇구나.
 대막대기에 돌을 쥌쳐
 뽕개로 후리니
 돌이 흑담으로 간 졌구나.
 (진성기, 서흥리본향, 김영식본)

고산국은 활을 쏘아
 지경을 가르면
 남편 갈 데가 없구나.
 대막대기에 돌을 끼워
 무릎매로 띄우니
 돌이 흑담으로 가 떨어졌구나.

고산국은 활을 쏘와
 지경을 갈르며는
 남편 갈 디가 엇일로구나.
 대막대기에 돌을 쥌전
 뽕개로 후리니
 돌이 흑탕으로 간 졌수다.
 (진성기, 홍로본향², 김희춘본)

고산국은 활을 쏘아
 지경을 가르면
 남편 갈 데가 없겠구나.
 대막대기에 돌을 끼워
 무릎매로 띄우니
 돌이 흑담으로 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뽕개질’이 조금 다르다. 막대기에 돌을 끼우고 휘둘러 띄워 던지고 있다. 이 외에 뽕개질과 관련한 본풀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노리출릴 심영 뽕개치곡(노루 꼬리 잡아서 내휘두르고)”¹⁸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조상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부분이다. 뽕개질은 돌팔매질 다음으로 인간이 구상한 사냥법이다. 원격사냥의 맨 처음은 평범한 돌을 던지는 것이었다. 나중에 우리 조상은 창을 던졌다. 그 후 투창발사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속도가 향상되어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다.¹⁹ 돌 던지기와 창던지기의 사이에 무릎매가 있다. 칼

18) 영아릿부씨조상본, 진성기, 위의 책, 695면.

19) 윌리엄 어빈, 전대호 옮김, 『아하, 세상을 바꾸는 통찰의 순간들』, 까치글방, 2015, 312면. 원격사냥이 발전하여 원격살해의 총과 대포가, 그리고 최근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명되었다. 돌 던지기에서 원격살해의 무기가 등장한 이 변모과정

과 창과 활을 쓰기 이전의 오래 된 사냥법이 제주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에 남아 있다. 식량을 찾는 데 쓰이는 도구를 생계물이라 하는데, 자연물과 인공물이 있고, 인공물에는 창이나 활과 같은 도구와 돌살과 그물과 같은 시설물이 있다.²⁰⁾ 자연물은 가공되지 않은 돌이나 나무를 의미하는데, 뽕개질(무릿매)은 자연물에 매우 간결한 인공을 가한 자연물과 인공물의 중간 지점에 있다.

<서귀본향당본풀이>는 신령서사시이고 사냥의 신에 대한 신앙서사시이다. 단순한 수렵민의 서사시여서 “더욱 복잡한 설정을 갖춘 창세서사시나 영웅서사시보다 먼저 등장한 서사시”²¹⁾였다고 본다. 서귀본향당본풀이에서 사냥꾼이 섬기는 사냥의 신의 내력을 노래한다. 늙은 아내를 버리고 젊은 첩과 함께 한라산에 나타나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냥꾼에게 자기를 섬기면 짐승을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전체에서 볼 때에도 아주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원시서사시의 드문 자료여서 아주 소중하다.²²⁾

지산국 부인님은

뽕개를 치니

연뒤동산으로 오란 떨어지고

다시 고산국 부인님은

뽕개를 치니

흑담으로 오란 떨어집네다.

(진성기, 서귀본향, 박생옥본)

지산국 부인님은

무릿매질을 하니

연대 동산으로 와 떨어지고

다시 고산국 부인님은

무릿매질을 하니

흑담으로 와 떨어집니다.

속에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단순히 먹는 욕망을 채우는 단계에서 자기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의 역사까지 진전되었으니, 첫 원격사냥의 도구인 ‘뽕개질’은 문명을 반성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20) 로버트 켈리, 성춘택 옮김, 『수렵채집 사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248면.

21) 조동일,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56면.

22)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2』,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244면.

큰부인이 성식을 내며 뽕개질을 하니 홍리(烘里) 안까름(內洞) 흑담에 지고, 비씨영감(卑氏令監)은 뽕개질을 하니 민섬(蚊島) 한도에 가 집테다.

큰 부인이 화를 내며 무릿매질을 하니 홍리(烘里) 안마을 흑담에 떨어지고, 비씨영감 무릿매질을 하니 문섬(蚊島)의 한도라는 곳에 가 떨어집니다.
(현용준, 西歸·東烘 本鄉堂, 박기석본)

그런데 이제 ‘뽕개질’은 사냥하는 행위만은 아니다. 활을 쏘는 행위와 함께 땅을 나누는 방식이 되었다.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곳이거나 뽕개질을 하여 돌맹이가 떨어진 곳이 좌정처가 된다. 활을 쏘거나 뽕개질은 더 이상 사냥의 행위를 상징하지 않고 인연 있는 땅을 찾아 이동하고 정주하는 과정과 관련을 맺게 된다. 더구나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고산국과 지산국(혹은 고산국과 바람운)은 땅을 갈라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산국은 물이 풍부한 논농사가 잘 되는 서홍리를 차지하고, 바람운은 건조한 상·하서귀를 차지하여 밭농사를 위주로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바람운은 산신에서 농경신으로 변모”했다고 해석한 바도 있다.²³⁾ 그러나 30년대 아카마츠·아키바의 채록에 의하면 “수심방 김수련의 사제에 의하여, 본향당에 진좌되어 있는 본향대신대부 二柱의 신, 실은 바람인 남신, 비와 안개의 여신을 제사지냄과 동시에”²⁴⁾라 했듯이 바람의 신이며 사냥의 신으로 사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본에 따라 바람운은 안개와 비를 부리는 데에서 기후신적 성격이, 고산국은 달리기와 활쏘기에 능한 모습을 보여 수렵신적 면모가 돋보인다²⁵⁾는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시간이 흐르면 수렵민이 계속 수렵채취로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 농경문화가 들어와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식량자원의 밀도가 높게 되면 수렵채취인이 이동을 멈추고 정주하게 된다.²⁶⁾ 제주 고산리 신석기

23)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117~127면.

24) 아카마츠·아키바, 위의 책, 386면.

25)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개정판), 한겨레출판, 2014, 350면.

유적은 한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유적으로 1만 년 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일찍 농경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하는 수렵민은 거의 토기를 만들지 않으며, 그 대신 무언가를 끓여야 할 경우가죽을 단단히 꿰매고 송진을 입힌 바구니에 뜨거운 돌을 넣는 방식을 취한다.²⁷⁾ 토기의 출현은 이미 사냥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징표다. 생업이 바뀌어도 부분적으로 수렵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면 수렵의 신과 신화도 남게 된다. 동절기와 농한기의 사냥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신의 이동을 통해 서서히 농경민이 되어가는 흔적도 남겨 놓았다. 수렵을 중시하는 문화가 남고, 수렵의 신과 신앙을 남겨 놓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오래 된 신화가 제주에 남아 있다는 증거여서, 서귀본향당본풀이에 주목하게 된다.

신들의 별거는 제주도 당본풀이의 보편적 신화소다. 부부신이 식성의 갈등으로 ‘땅 가르고 물 갈라 분산’하게 된다. 송당계 신화에서는 대개 남신은 사냥을 하는 신으로 肉食神, 여신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米食神으로 나온다. 일부에서는 여신이 돼지고기 육식으로 금기를 어겨 분산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래서 마을의 경계가 나뉘고 두 개의 신앙권으로 분리된다.

그런데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은 식성갈등에 의한 분산이 아니라 부부의 별거가 처첩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남신이 본부인을 버리고 여동생을 택하게 되자 분노하고 죽이려 하다가 결국 남신과의 별거를 결정하게 된다. “암만 열 백 번 생각을 하여도 당신하고 살 수가 엇이매 부배간정이랑 뒤도 내 손에 밍은 다 자쌔소. 하니, 딱로 갈라 살자.”²⁸⁾라고 본부인 고산국이 선언하고 땅과 물과 인간을 가르게 된다. 그 법으로 서홍리와 동홍리·서귀리는 지금도 혼사를 하지 않고, 하여도 잘 되는 법이 없다는 후일담까지 본풀이에 담겨 있다. 제주도 신화에서는 부부가 식성갈

26) 로버트 켈리, 위의 책, 215~217면.

27) 로버트 켈리, 위의 책, 256면.

28) 진성기, 위의 책, 504면. ‘서홍리본향’

등으로 분거한 후에 남신이 첩을 두는 것이 보편적인데, 여기서는 처첩갈등으로 분거가 이루어진다.

바람운은 사냥의 신으로 수렵을 위주로 하는 신이라면, 고산국은 농경신으로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부부의 정은 그대로 두되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²⁹⁾ 부부의 갈등이 식성갈등은 아니지만 生業 갈등일 수 있는 단서도 있다고 하겠다. 사냥의 신이 육식을 한 처를 내쫓는 경우를 보면 사냥의 신이 바로 육식 신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냥의 신이 육식을 한 처를 내쫓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고, 육식신이 아닌 미식신인 점도 난해한 국면이다. 당신본풀이가 역사적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모하면서 사냥의 신이 ‘육식신’으로서의 직능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대단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향후 풀어야 할 본풀이의 난제다.

그러나 본질은 처첩갈등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다. 고산국과 지산국의 관계를 본다면 원래 형이 차지해야 할 것을 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형태로, 이 점 또한 <천지왕본풀이>와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은 일치하는 양상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형이 차지할 이승세계를 위계로 동생이 차지하게 되는 상황과 유사한 점을 느낄 수가 있고 아울러 이승과 저승이 분할되는 양상도 흡사하다.³⁰⁾ 다음 장에 살피게 될 화소가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하는 과정인데, ‘천 근 활과 백 근 화살’을 든 모습은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을 연상시킨다. 고

29) 김화경은 이른 시기의 논문에서 바람운을 風神으로 보고, “원래 풍신은 바다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는 어로 생활의 신이었다. 그것이 생산형태의 변천과 더불어 농경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보았다.(김화경, 『서귀포 본향당본풀이의 구조분석』, 『구비문학』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41면) 바람의 신이 바다와 깊은 관계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라산과 뽕개질과 활과 사냥꾼 김봉태를 엮어 생각하면 애초 바람운은 사냥의 신이었다. 어업 혹은 농업과 연관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견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0) 권태효, 『한국신화의 재발견』, 새문사, 2014, 125면. 앞에서 ‘어둠 또는 혼돈으로부터 세상이 밝아오도록 하는 신화소’가 제시되었는데, 그것과 아울러 <천지왕본풀이>와 유사한 점이 여럿 발견되는 점을 통해서,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상관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산국이 ‘천 근 무쇠 활과 백 근 화살’을 둘러메고 지산국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더욱 닳아 있다. 당본풀이가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와 유사한 구조와 양상을 보이는 점은 지속적으로 더 고찰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3-3. 射矢卜地

射矢卜地는 ‘활을 쏘아 살 곳을 점친다.’는 탐라국 건국신화의 구절이다. 고 양 부 3신이 각자 살 곳을 정하기 위해 활을 쏘아, 1도 2도 3도에 분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1도 2도 3도는 제주시의 지명일 수 있고 혹은 제주목과 대정과 정의 세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하는 화소는 서귀포 쪽 본향당 본풀이에 산견된다.

할로영주산

썰거릿낭 된밭디서

아홉성제 솟아났수다.

이 아홉성제가

을축 삼월 대보름날

천근활에 백근쌀을 숲피

흔날 혼시에

산 앞테레 쌀을 쏘우니

상가지는 눈미로 가

쌀이 지니

제석천황 하로백관으로

가 좌정하고

둘째는 난미 제석천황으로

가고

셋째는 동홍리 지산국으로

한라 영주산

아카시아나무 된 밭에서

아홉 형제가 솟아났습니다.

이 아홉 형제가

을축 삼월 대보름날

천근 활에 백근 화살을 메워

한날 한시에

산 앞으로 화살을 쏘니

첫째는 눈미(와산리)로 가서

화살이 떨어지니

제석천황 한라 백관(百官)으로

가서 좌정(坐定)하고

둘째는 성산면 난산리 제석천황으로

가고

셋째는 동홍리 지산국으로

가고
 너체는 서흥리
 고산국으로 가고
 (진성기, 대포본향, 강계월본)

가고
 넷째는 서흥리
 고산국으로 가고

이젠 성제가 바둑으로
 성 아실 골리고
 할루산에 올라가 활을 쏘니
 성이 손 째은
 예촌당에 간 지고
 아시 쏘 째은
 조녹일 간 지엿수다.
 (진성기, 토평본향¹, 이봉천본)

아홉 형제가 바둑으로
 형과 아우를 가리고
 한라산에 올라가 활을 쏘니
 형이 쏘 화살은
 예촌의 신당에 가서 떨어지고
 아우가 쏘 화살은
 조녹이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서귀포 쪽의 한라산계 <중문본향당본풀이>라 하더라도 “한로 영산 삼신산 셋어께 소못된 밭 을축 삼월 대보름날 아홉성제가 솟아나고 신거리된 밭도 위(位)도 가르고 좌(座) 가르고 큰 성님은 수산”³¹⁾라고 하여, ‘위(位)도 가르고 좌(座) 가르고’로 간결하게 9형제의 분거를 구송하고 있다. 여타의 색달리, 열리 등 한라산계에서도 대체 유사하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 “할로영주산 셋어께 안 ‘소못웬밭’디서 솟아나고 ‘칠거리웬밭’디서 가지 갈라졌젠 흥주계. 어떤 사름은 화살인가 시여네 화살 신 거 떨어 지느냥 가지 갈라졌젠 해도, 그것이 아니라서.”³²⁾ 활을 쏘아 떨어진 곳으로 분거하였다고 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어 신빙성이 없다고 부정하는 내

31) 장주근, 위의 책, 239면. ‘중문리 본향본풀이.’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서도 중문면 색달리 한집본의 경우, “한집님이 할로영산 셋어께로 아홉성제 솟아나니 신거리된밭으로 좌정해서 아홉성제가 우갈르고 좌갈르자”(522면)라고 하여 ‘위와 좌를 나누는’ 내용이다.

32)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76면. ‘중문당본풀이(1)’ 1985년 김명선 심방의 구송이다.

용도 있다. 이처럼 활을 쏘아 분거하는 구송은 드문 편이다.

강계월본 ‘대포본향’에는 9형제 중에서 셋째와 넷째에 동흥리 지산국과 서흥리 고산국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남제주군의 ‘중문본향당’을 비롯한 호근, 예촌, 수산, 색달의 아홉 형제 구성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강계월본은 예외적이다. 그래서 김현선 선생도 지산국과 고산국의 계보 편입이 본질적인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³³⁾ 강정식 선생은 <중문본향당본풀이>는 신의 계보상 한라산계, 서사유형상으로는 송당계에 속하는 자료이고, 김명선본을 택한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³⁴⁾

그러나 화살을 쏘아 분거하였다는 점에서는 삼성신화와 비견된다고 하겠다. ‘광정당본풀이’에서는 삼성신화에서 고을나, 양을라, 부을라 3형제가 활을 쏘아서 경계를 구분했듯이 3형제가 각기 활을 쏘아서 정의와 대정과 목안(牧內)의 경계를 가른다. 그래서 큰 형님은 목안 광양당에 좌정하고, 둘째는 정의 서낭당에 좌정하고, 셋째는 대정 광정당에 좌정하여 각기 목안, 대정, 정의를 차지한다.³⁵⁾ ‘토평본향1’에서 형제가 바둑으로 형과 동생의 순서를 정한 후에, 형과 동생이 활을 쏘아 예촌당과 조녹잇당으로 분거하였다는 것도 3형제의 분거와 상통한다. 삼성신화의 원형이 남제주군 지역에 여럿 남아 있는 셈이다.

嘆曰 我天帝之孫 河伯之甥 今避難至此……以弓打水 魚鼈浮出成橋 朱

33) 김현선, 위의 논문, 258면. 그는 송당본풀이, 여드렛당본풀이, 동흥리당본풀이, 중문리당본풀이, 광정당본풀이 등 다섯 계열로 나누고 있다. 즉 중문리당과 별개의 ‘동흥리당’ 계열로 독립해 독자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34) 강정식,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에 대한 토론』,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83면. 그는 아래의 <광정당본풀이>는 신의 계보상으로는 송당계, 서사유형상으로는 한라산계에 속하는 자료로, 산남에서 전승되는 자료로는 유일한 송당계 계보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귀포본향당본풀이>는 계보상 한라산계이나 서사유형상으로는 한라산계와 유사성이 없어, 특수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성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를 논하고 있다.(283~284면)

3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658~659면. ‘광정당’

蒙乃得渡 (東明王篇)

松讓以王累稱天孫 內自懷疑 欲試其才 乃曰願與王射矢 (東明王篇)

주몽이 천황(皇天)과 후토(后土)에게 빌고 활로 강물을 쳐서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도록 한 것과, 송양과의 대결에서 활로서 승부하여 승리한 점, 이 두 화소는 주몽이 ‘하늘의 뜻을 묻고 활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음’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뒤의 화소는 ‘천손으로서의 권능’을 인정받고 더불어 고구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라는 내용이다. 탐라국 건국신화의 ‘射矢卜地’의 의미를 주몽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살핀다면, 활을 쏘아 하늘의 뜻을 묻고 거주지를 정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활로써 하늘의 뜻을 묻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라 여겨진다.³⁶⁾

활을 쏘아 사냥을 하던 바람운이,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한다는 문맥은 탐라국 건국신화의 3신인이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다가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한다는 신화소와 매우 닮아 있다. 서귀본향을 비롯한 서귀포 몇 곳에만 오래된 신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3-4. 신들의 위엄

바람운님은

남방스주 합바지에

붕애바지 저고리에

머리올려 감상통

무낭동곳 질르고

백낭보선

구만리 박단이

바람운님은

藍紡紗紬 핫바지에

붕어바지 저고리에

머리 올려 신의 상투

산호 동곳 찌르고

白낭버선

九萬里처럼 긴 박다워(멜빵)

36) 허남춘, 『삼성신화의 신화학적 고찰』,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45면.

별통행경 둘러치고	별집처럼 구멍 뚫린 행전
황망긴 황갓	큰 망건과 큰 갓
산쇠털 흑도벌립	生牛毛 黑뽕거지
은문다단 안을 받쳐	雲紋大緞 안을 받쳐
중양서 둘립 밀화 궁덕깃	朱紅紗 둘림 蜜花 孔雀 깃
대공당 불림친	大貢緞 바람에 날리는 끈
소공단 죄움친	小貢緞 줄이는 갓끈
남비단 십수	藍緋緞 夾袖
남수아지 통전대	藍水禾紬 通纏帶 ³⁷⁾

바람운 신의 형상인데, 비단으로 만든 바지 저고리에 멋진 상투에 보석 동곳을 꿰고, 망건과 갓을 쓰고 비단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식을 달아놓은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바람운의 앞에는 지산국의 형상도 있는데 명주 바지에 홀단치마와 구슬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모습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좋은 비단으로 장식한 남녀신의 휘황한 모습은 당골과 심방의 신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여기에는 바람운의 옷단장 및 활로 삼천군병을 다스리는 바람운의 위엄을 내보이고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은 이렇게 섬기는 당신들에 대한 화려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신을 숭앙하는 당신본풀이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³⁸⁾

讚神의 절차에는 위엄 있고 아름다운 신의 외모, 호화찬란한 옷과 치장, 탁월한 위력과 공덕 등이 주된 찬양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³⁹⁾ 이 찬신의 절차는 娛神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하며, 다음의 예를 들었다. 서울 지역 열두거리굿 <창부거리>에 나오는 광대치장 대목이다.

37) 진성기, 위의 책, 498~499면.

38) 권태효, 위의 책, 121면.

39) 박경신·김현선, 『무가의 이해』,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310면.

광대 치장이야 없을손야
 절구통 바지, 골통행전, 고양나이 속버선에
 몽기 삼싱 것버선에 아미 탐골 밋투리에
 장창 밧고 굽창 밧고, 매부리 징에 잣징 박고
 어-ㄴ 망건 당사 쓴에
 엽낭 차고 상낭 차고
 메고 나니 검낭이요, 차고 나니 상낭이라⁴⁰⁾

여기에서는 대체로 옷과 치장이 열거되는데 바지, 행전, 버선, 망건, 잣 끈 등의 치장이 앞의 바람운의 모습과 흡사하다. 무가에서는 청배의 절차에서 신의 내력이 강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치장 부분이 소략화되어 나타나는 편인데, 여기 본풀이의 치장 묘사는 매우 상세한 편이다. <고려 처용가>에서는 청배의 절차에서 신의 내력이 소략화된 반면, 찬신의 절차 서술이 강화됐기 때문에, 처용의 위용과 치장 서술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고려 처용가>에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세밀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묘사되어 그 모습에 대한 경탄이 절로 나온다. 고려 처용가 전체 노랫말의 반을 차지하는 이 부분은 무가 중 찬신의 백미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예술미가 두드러진 표현이라 하겠다. ‘서귀본향’의 뒷부분에서 34행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산국과 일문관에 대한 형상 묘사 부분도 서사 무가 중에서는 찬신의 백미로 일컬어질 만하다. <서귀본향당본풀이> 계

40) 아카마츠·아키바, 위의 책, 111~112면. 위와 유사한 외모 묘사가 잡가 ‘토기화상’에 전한다.

턴하명산 승디간에 경기 보든 눈 그리고
 앵무공작이 지저울 제 소리 듯던 귀 그리고
 봉늬 방장 운무 중에 닮 맛든 코 그리고
 란초 지초 온갖 화초 꽃 싸먹든 입 그리고
 만화방창 화림 중에 펼펼썩든 발 그리고
 덕한 엄동 설한 중에 방풍흔든 털 그리고

좌편에는 청산이요 우편은 옥슈로다(정재호, 『한국잡가전집』 2권(계명문화사, 1984), 176면)

열은 신의 좌정 경위에서 신의 직능, 신들의 갈등과 화해, 신의 위엄과 신앙의 신성함까지 두루 갖춘 드문 신화 본풀이라 하겠다.

4. 결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의 신화는 매우 특별한데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이 신화 본풀이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바람운과 지산국이 제주도 한라산으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암흑의 세상과 어둠을 몰아내고 천지를 개명시키는 전개는 예사롭지 않다. 이는 <천지왕본풀이>의 천지개벽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서귀본향당본풀이> 신화에는 원시적 신령서사시로서의 면모가 내장되어 있다.

둘째, 다른 본풀이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구체적 사냥의 방법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산간 지역의 산신신앙과 연관된 지역에서도 사냥꾼과 사냥의 신이 등장하고 있지만 ‘뽕개질’과 같은 구체적인 사냥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뽕개질은 칼과 활로 사냥하기 이전의 원시적 사냥법으로 신화 속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문맥으로 희소성을 인정할 만하다. 사냥의 신과 김봉태란 당골이 맺는 관계 속에 수렵민의 신앙체계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화의 면모라 하겠다. 가히 세계적인 신화라고 인정할 만하다.

셋째, 활을 쏘아 좌정할 땅을 정하는 방식은 이 본풀이가 한라산계이지만 송당계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증거이고, 특히 탐라국 건국신화에서 3신인이 활을 쏘아 주거지를 정하는 신화소의 원형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송당계 본풀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실마리를 여기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넷째, 신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오는 과정과 신들의 갈등과 화해, 신과 신앙민의 계약과정 뒤에 덧붙은 신들의 형상은 이 본풀이가 신앙서사시

임을 더욱 견고히 해주고 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인이 우리를 형상을 묘사함으로써 신의 위엄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아름답고 화려하고 탁월한 형상은 문학적 형상미를 더해주어 <서귀본향당본풀이> 신화가 종교와 문학을 겸비한 신앙서사시라는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주도 본풀이는 소멸해 가고 있다. 심방도 사라지고 있다. 물론 신앙민도 60-70세여서 신앙체계도 곧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근대화 60년 동안 무속을 미신으로 폄하하는 교육이 학교에서 계속되었던 점을 우선 반성해야 한다. 불교와 기독교를 고등종교라 명명하고 무속을 원시신앙으로 폐기처분해야 우리의 삶이 진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몽했던 우리 시대의 관행을 반성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이름으로 굿과 무당을 핍박하고 巫具를 압수하고 압살했던 공권력을 다시금 비판해야 한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전통문화로 인정하고 무형문화재로 보존정책을 펴는 것은 분노할 일이지만, 그래도 수긍하고 다음 진전된 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주큰굿은 제주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예능보유자를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서귀본향당과 <서귀본향당본풀이>는 매우 값진 자취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중앙으로부터 제주가 소외되었듯이 제주도 안에서는 서귀포가 소외지역이 되었다. 이제 지역 속의 지역으로 눈을 돌려 지역문화를 돌봐야 한다. 이 귀중한 지역문화를 돌보아도 그 신앙이 되살아날 가망은 없다. 제주학에 대한 관심은 살아나고 있지만 진정 제주학을 정립하는 데에는 소홀하다. 소중한 신화를 오래 기억할 사람들도 사라져 간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천지창조와 원시 사냥법의 신비를 그대로 갖춘 <서귀본향당본풀이> 계열의 신화가 우리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옛 사람들의 삶과 사유에 대한 탐구가 부활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에 대한 토론』,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283~287면.
- 국립민속박물관 편, 서귀포본향당본풀이,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2012, 355~356면.
- 권태효, 『한국신화의 재발견』, 새문사, 2014, 1~305면.
- 김기형, 『서귀포 심방 박봉춘의 가계와 무업 활동』, 『한국무속학』 31집, 한국무속학회, 2015, 35~55면.
- 김현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243~282면.
- , 『한국무조신화연구』, 민속원, 2015, 1~471면.
- 김화경,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의 구조분석』, 『구비문학』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 로버트 켈리, 성춘택 옮김, 『수렵채집 사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1~638면.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298면.
- ,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1~428면.
- 박경신·김현선, 『무가의 이해』,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278~339면.
-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개정판), 한겨레출판, 2014, 1~350면.
- 아카마츠·아키바, 심우성 역, 『조선 무속의 연구(상)』, 동문선, 1991, 355~371면.
- 윌리엄 어빈, 전대호 옮김, 『아하, 세상을 바꾸는 통찰의 순간들』, 까치글방, 2015, 1~394면.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면.
- 정재호, 『한국잡가전집』2권, 계명문화사, 1984, 1~563면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507면.

- ,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2』,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1~405면.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22면.
- 한채영, 「구비시가의 텍스트 거시구조와 인접성의 배열방식」, 『민요·무가·탈춤연구』, 태학사, 1998, 205~234면.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 2011, 1~350면.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1~859면.

논문투고일: 2016.04.20. 심사완료일: 2016.06.08. 게재확정일: 2016.06.09.
--

Abstract

A characteristic and significance of <Myth of Seogyi Shrine> (西歸本鄉堂)

Heo, Nam-choon

There is beautiful scenery and a beautiful myth in Jeju. Myth was made very before, but was handed down continuously without disappearing in Jeju. It is a story for the life of hunting and the collection to be old than farming. Such a story tells with a song(Oral Epic). It is something like miracle that Oral Epic associating with God of the hunting is left. <Myth of Seogyi Shrine> is Oral Epic of the faith. There is the story about God of wind and God of hunting and the hunter. Human wish about hunting in this myth is accepted like Altamira cave wall Picture. So it is the figure of myth that the first human beginning was born.

I see a motif of 'beginning of the world' in <Myth of Seogyi Shrine>. There is the story that it was darkness, and the world became slightly bright in a beginning of the world. It is thought with a genesis-like figure more than <Cheonjiwang Myth(천지왕본풀이)>. There is a personified god clarified darkness. Therefore it seems to be the form that advanced earlier than non-personified god.

The Motifs of Sling and archery are like the founding of Tamla (耽羅) country myth. The main characters(3God in Tamla Myth) decided the place after hitting the bow, and they settled down. The three hunting Gods came to settle down after having met 3

goddesses. Also this main characters in Myth of Seogyi Shrine turned into settling down their life. The shape of God in this myth is very precise and detailed and elegant and splendid. I understand a heart to admire that a citizen of faith wears. In a figure of beautiful and noble God, I come to realize reciprocity of religion and literature again.

key words: Hunting method, God of the wind, God of the hunting, Beginning of the world, The Creation, Inscription God, Jeju Island, Sogwipo, Oral epic
(口碑敘事詩)